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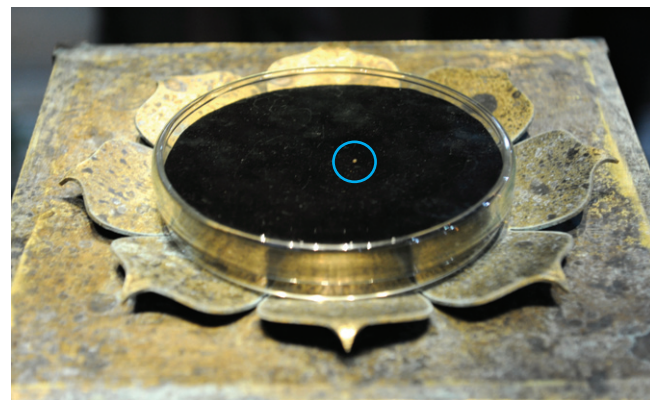
석가탑 2층 사리모신 곳, 47년만에 '햇빛'



4월 2일 석가탑 2층 옥개석을 해체하는 모습.



2층 옥개석 사리공의 복제 사리 장엄구.



사리 장엄구에서는 사리(과)표시가 나왔다.



탑신 2층 옥개석(표시)에서 사리 장엄구 일체가 수습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4월 2일 47년만에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 2층 옥개석을 해체하고 탑신의 사리공에서 사리 1과와 사리장엄구를 수습했다. 이번 사리장엄구 일괄의 수습은 전면해체 수리 과정 일환으로 사리는 불국사 무실전으로 이운됐다. 불국사는 2014년 3월 말까지 진신사리전건립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9면

“사회통합 앞서 종교 스스로 성찰해야”

불교사회학 2주년 세미나서 종교인 '한목소리'

“사회통합은 시민 스스로의 자발적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종교계가 나서 자발적 동참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 스스로의 성찰이 선행돼야 합니다.”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4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종교,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다’ 세미나에서 종교계의 사회통합 기여에 앞서 종교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불교사회연구소가 개소 2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의 ‘한국사회 갈등의 양상과 대안-사회통합의 방향 모색’,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 발제에 이어 흥선 스님, 장동훈 신부(전주교 주교회

의 정의평화위 총무), 이훈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등 종교계의 활발한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이날 흥선 스님은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핵심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한다는 유발된 부분이 많다”며 “공정경쟁, 정의 수렴 등 원칙 확보에 종교를 넘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흥선 스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사회에는 충돌을 증대하거나 이해 당사자 간 소통을 매개하는 균형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 종교인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훈 신부와 이훈삼 목사도 양극화 심화로 커지고 있는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종교의 역할을 꼽고 종교계



흥선 스님 이훈삼 목사 장동훈 신부

의 변화를 촉구했다.

장동훈 신부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려면 그 무엇보다 종교 내부의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신부는 이어 타종교의 진리추구를 인정하는 제2회 바티칸 공의회 예로 들며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고민은 다문화, 다종교적 상황을 방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생겨났다. 종교간 대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흥선 스님은 “현재 정치권이 복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하지만, 종교 스스로도 복지를 빙자해 교세확장 등에 나서고 있

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순수한 자기희생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훈삼 목사는 “종교가 사회에 관여하는 방식은 직접적이기 보다 간접적이어야 한다”며 “직접적인 개입은 종교가 정치집단으로 환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종교의 권력화와 세속화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 목사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며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데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사회에 알려야 한다”며 “종교 스스로 권위를 확보할 때 이런 가치를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경제학의 입장에서 “세금 감소를 골자로 하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은 “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계 등 사회 약자를 돌보는 데는 구분이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42년 불사 족쇄 풀렸다

서울시, 3월 28일 도시공원법 조례 제정

전통사찰임에도 도시공원으로 묶여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없었던 강남 봉은사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3월 28일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해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공원 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71년 유신정권 시절 일방적인 도시공원 지정 이후 봉은사는 전통사찰로는 문화재보호법, 도시공원으로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건물 증개축이 엄격히 제한됐다.

봉은사가 TTF팀을 구성하고 중앙기 중찰부사계획을 마련해 설득에 나서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이끌어냈다. 시행규칙에서는 역사공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역사관련 시설에 한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했다. 마지막 관문인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불사가 가능하게 됐다.

4월 4일 열린 42대원 대다라니 기도정진 특별법회에서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법률안 개정이 통과된데 이어 최근 서울시 조례



봉은사가 제시한 중창불사 조감도

개정까지 이어졌다. 다라니 기도를 통해 신도들이 하나된 마음을 모은 결과다”며 경과보고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진화 스님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의 규제에서 건물 설치 가능하게 된 것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되는 작은 초석을 놓은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봉은사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화 스님은 이어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불사계획을 재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가람불사에 나설 예정”으로 “봉은사가 시민들의 휴식처로, 외국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불련, 법인화 등 변화 필요하다”

대불련 문제 해결 공청회서 변화 방향 모색

“대불련은 사실 존재의 기로에 있다고 보인다. 법인화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중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 스님)

“대학생 포교를 위해서는 스님, 일반신도, 학부모, 교수불자, 대학생 중 누구를 포교 주체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 계층별 신도조직을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조계종 포교국장 노후 스님)

“요새는 신입생보다는 고학년들이 불교 동아리를 찾아오고 있다. 스님과 종단 관계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대학생들이 왜 불교동아리를 찾는지 그들

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현정 이화여대 11학번)

대학생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대불련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대불련은 4월 5일 전법회관 3층에서 총무원, 포교원, 전법단 및 실무 총무원과 대불련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초청해 ‘대학생 청년 포교의 길찾기, 미래 50년의 대불련 진단’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주경 스님이 ‘종

단에서 바라보는 대학생 포교 그리고 대불련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노후 스님이 ‘조계종 포교원의 전법의 기지와 대학생 포교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주경 스님은 대불련에 대해 “50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공간·시설 등 안정적 활동기반이 부족하며 종단 지원금과 후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경 스님은 “대불련을 찾는 학생들은 종교적 요구와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대불련은 활동을 담보하는 조직기반과 종교적 통합을 위한 불교적 가치의 재정립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파라미터를 비롯해 중앙신도회, 청년회 등 많은 신도조직들이 법인화로 사회 변화에 대응해가고 있다. 대불련도 더 이상 머

뚫기지 말고 법인화를 통한 안정적 조직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스님은 “연령에 따른 계층행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련(어린이)에서 파라미터(청소년), 대학생(군장병)에서 청년(대불련) 등 계층의 연계적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스님은 “대학가 주변의 지역·현지사찰을 통해 대학생 포교를, 각 사찰의 주지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스님이 나서서 포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 김정현 대불련 간사, 김한일 전 대불련 서울지부장 등이 대불련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한편 대불련은 4월 12일 오후 7시 전법회관에서 현장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및 동문들을 초청해 자신의 활동경험,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불련을 바라보는 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은 기자

3,6일간의 깨달음 금강단식

손에 잡히는 참선

왜 참선인가! 몸과마음, 이대로 두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몸과마음,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완전무결한 본래자신으로 돌아감이 깨달음이다**

금강단식 **면역성 피부미용아토피 금연금주속각해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정신 우울증 예방치유 다이어트1월최고3kg 1개월25kg**

참선 수련회 6일 선회 3일 **깨달음이란? 머리가 둔하면 4월19금~24 4월19금~21 돈한대로 머리가 흐리면 호 5월 3금~ 8 5월 3금~ 5 린대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단식**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행복제작소 **할인선원** ☎1644-5266
 제주원명선원중앙선방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룡산
 자세한 내용은 www.hwain.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전통 '조왕탱화'

옛말 그대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그 “조왕탱화” 사업장의 조왕신은 장사흥왕과 사업변장을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가치가 더해가는 전통탱화입니다.

조안 (먹물 밀그림) 상호 (전통조왕상화) 문양 (고대문양)

- 기법: (1) 출초 - (2) 배접 - (3) 아교포수 - (4) 도채 - (5) 바림 - (6) 문양 - (7) 금니 및 황선 쫓침 - (8) 금박붙이기 - (9) 상호 - (10) 틀 싣기 - (11) 발미(전통기법 그대로!)
- 금어: 원장 - 전국 공모전 불교미술분과 심사위원 화원 - 문화재 기술자, 기능자, 전수자
- 재료: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규격: 가로 61cm X 세로 91.5cm
- 문의전화: ☎ 051)332-0045 / 010-9216-0988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조왕탱화 상세안내

- 1 정의: 부역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盧王壇)에 봉안된다.
- 2 유래: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 3 명호: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미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 4 구성: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 5 한국의 대표적인 조왕탱화: 양산 통도사 비로암, 충남 계룡산 갑사, 대구 팔공산 선본사, 부산 삼광사, 경남 밀양 표충사
- 6 필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盧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 7 내용: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